

北 장사정포 요격...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 5년내 구축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

'한국형 패트리엇·사드' 배치

초소형 위성·자폭드론 등 개발

군단국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KAMD)를 5년 안으로 구축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하층·상층방어에 필요한 중·장거리 요격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당초 예상했던 2030년대에서 2028년까지로 앞당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까지 이 기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KAMD 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사거리와 요격률이 크게 향상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II)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2028년까지 작전 배치된다. 개발 중인 M-SAM-II와 L-SAM 작전 배치 시기를 2028년까지로 못박았다. 당초엔 2030년대엔 전력화될 것으로 여겨졌다.

'한국형 패트리엇' M-SAM-II(천궁-II)는 고

도 30~40km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작전 배치된 M-SAM-I(고도 20km 이하)를 개량한 것이다.

이들 무기와 함께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전력은 일부 작전 배치된 패트리엇(PAC-2/PAC-3·고도 40km 이하), 개발 중인 M-SAM-III(고도 40km 이상)가 있다.

M-SAM-III는 북한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M-SAM-II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이 향상된 유도무기를 말한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되는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하층방어 전력이다.

상층방어 전력으로는 '한국형 사드'로 전력화가 완료된 L-SAM(고도 50~60km)과 개발 중인 L-SAM-II(고도 60~150km 이하)가 있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이 핵심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와 동일한 요격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타격할 L-SAM-II는 오는 2035년까지 2조710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다.

국방부는 "천궁-II, PAC-3 유도탄, L-SAM 등 다양한 방위전력을 확보해 수도권 및 핵심시설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할 것"이

라며 "장사정포요격체계와 M-SAM-III, L-SAM-II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차원에서 초소형 위성 체계와 군집(발떼)·자폭드론, 전자기필스탄(EMP탄), 정전탄(탄소섬유탄)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위성을 2028년까지 개발해 2030년대 40여기를 우주에 띄운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소형 위성 40여기와 군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되면 북한 전역을 30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어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등의 움직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폭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투입되면서 살상력과 파괴력이 증명된 무기다.

우리 군도 이런 자폭드론을 개발해 유사시 북한 지도부와 발사·지원시설 등을 타격한다는 게 군의 구상이다. 무게 3~4kg가량의 폭탄을 탑재한 드론 수십여기를 목표물에 돌진시키면 파괴력이 상당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발떼 드론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타격 및 파괴 능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9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 3축 체계 장비들이 이동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영록 전남지사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지역발전 견인"

두바이·사우디 '혁신모델' 강조

최근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영록 전남지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바이라는 열악한 여건에 최고의 도시를 조성한 두바이와 석유의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소멸 위기에 있는 전남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순방에서, 사고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 아

이디어로 비전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막 위의 도시 두바이가 세계적 혁신 도시로 성장하고, 오일달러로 부를 축적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을 통해 석유를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고, 최첨단 내움시티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고, 월드컵과 동계아시안 게임 유치에도 도전하는 등의 대혁신 모델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비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무작정 일을 열심히 하거나 두바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비전과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실천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관련, "두바이 28차 총회에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에 기후위기 대책을 소개해 공감을 이끌었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규모 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총회 개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이 103억원을 돌파해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며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를 활용해 주요 도정 시책을 알리므로써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토록 하는 등 관련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세계 '홍역주의보'...국내 환자 8명 해외유입

호흡기 감염병...예방접종 중요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일 기준 올해 국내 홍역 환자 수는 8명으로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집단 발생은 없었지만, 절반인 4명이 10월 이후 발생했다.

2급 법정감염병인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전신 발진, 구강 내 병변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2~18이나 된다.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

국내에서는 2000~2001년 대유행이 발생했지만,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급감했다. 2014년 세계

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홍역퇴치를 인정받은 뒤에는 해외유입 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홍역 환자는 2019년 194명이나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 왕래가 줄어든 2020년 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지난해에는 환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수는 작년 17만1296명으로 직전년보다 2.9배 급증했다. 올해는 10월 11일까지 작년 동기의 1.8배에 달하는 22만3804명이 홍역에 걸렸다.

올해 발생한 국내 환자 8명 중 4명은 가자흐스탄 방문 관련 사례였으며, 2명은 인도, 1명은 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다. 나머지 1명은 항공기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은 홍역 유행구기를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역~송정역 '셔틀 열차' 7년만에 종료... 17일까지만 운행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광주선 셔틀 열차'가 운행 7년 만에 퇴역한다.

광주시는 "오는 17일을 마지막으로 광주선 셔틀 열차 운행을 종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셔틀 열차는 KTX가 진입하지 않는 광주역 이용객의 고속열차 환승 편의를 위해 2016년 12월부터 운행했다.

광주역~극락강역~송정역 14km 구간을 15분 만에 연결해 하루 30회 왕복 운행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의 CDC(Commuter Diesel Car)로, 통근열차로 분류된 덕에 이용요금이 1000원에

불과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고, 광주시는 매년 15억원 운영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1회 평균 탑승객이 18명에 그치는 상황에서 코레일은 오는 18일부터 운행을 종료하겠다고 지난 9월 통보했다.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수단이 충분하고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열차를 폐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광주시는 연장 운행 또는 누리로, 신형열차(EMU-150) 등 투입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누리로를 광주 차량 정비 시설이나 여분이 없었고 EMU-150은 이용요금(4800원) 인상으로 운영비 부담을 60억원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철도 1호선 열차를 개조해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현실성이나 경제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좌석 02, 송정 19, 송정 98 등이 운행되고 기존 지하철 1호선에 더해 2026년 2호선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비빔밥' 올해 구글 레시피 부문 검색어 1위

우리나라 비빔밥이 올해 구글의 레시피 부문에서 작년보다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검색어로 나타났다.

구글은 2023년도 '올해의 검색어' 중 레시피 부문에서 '비빔밥'이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검색어'는 올해 검색량에서 작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를 소개하는 순위이다.

'비빔밥' 검색이 많이 증가한 것은 한식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반영한다.

노래 부문에서는 피프티 퍼센트의 '유티드'가 글로벌 5위에 오르며 최재갑을 나타냈고, 정국의 '세븐'이 10위에 오르며 사그라지지 않는 BTS의 인기를 보여줬다.

/연합뉴스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취득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4일 임시조립위원회에서 해산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신문공고 게재 익일부 2개월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13일
장산과수채소영농조합법인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332
청산인 최윤성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7일 총사원회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 익일부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13일
유한회사 다형
광주광역시 남구 효사광길 14, 109동 401호(봉선동, 포스코더샵아파트)
위 청산인 박정출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경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칼빌딩

월 3천7백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0억 (현금34억)

010-3646-8700(직거래)

분할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건영전력은 서기 2023년 12월 12일 그 재산(전기자재 도, 소매업)의 일부를 분할(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가칭"주식회사 뉴케이와이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는 바,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본 회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회사의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3년 12월 13일
주식회사 건영전력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 41
대표이사 박종윤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